‘부실 경기장’ 亞게임 국제 망신… 예산절감 좋지만 격은 갖춰야

이젠 광주U대회다

<하> 이렇게 준비하자

조직위 공무원 툭하면 교체…행정-체육계 손발 안맞아

광주·전남·전북 분산된 경기장 수송대책 만전 기해야

최소 3만여명 필요한 자원봉사자 확보·교육도 시급

인천아시안게임의 운영 미숙에 대해 말들이 많다. 말 끝엔 내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는 이래선 안 된다는 결론이다. 대학생들이 펼치는 아마추어 체전이지만 운영조차 아마추어로 해서야 되겠느냐는 다짐인 것이다.

하지만, 광주의 준비 상황과 인천을 대입해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조직위 얼굴 익힐만하면 교체=먼저, U대회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이다. 2012년 조직위원회 구성 이후 수차례 인사이동이 있었고, 특정 업무는 6개월에 한 번 꼴인 3~4명이 교체됐다. 이렇다보니 체육행사를 담당할 경기단체 전무이사와 종목 담당 공무원간 삐꺽거리고 있다. 지역 체육인들 사이에서는 “얼굴 좀 알만하면 담당자가 바뀐다”며 볼멘소리가 많다.

특히, 국제대회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인천아시안게임에 공무원은 파견했지만, 경기운영을 지원할 체육인들은 제외돼 아쉬웠다.

임효택 광주수영연맹 전무이사는 “각 경기단체 전무이사들이 U대회 협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천에는 행정가인 조직위 직원들만 파견되고 협력관들은 제외됐다. 행정가와 체육인이 함께 파견돼 노하우를 쌓았으면 효과가 두 배로 커졌을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예산 절감도 좋지만 격은 갖춰야=저비용 대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은 ‘예산 절감’을 한다며 경기장을 부실하게 지었고, 문화행사를 축소하면서 ‘아시안게임이 아닌 한국판 전국체전’이라는 비아냥까지 쏟아졌다. 이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떨어져 흥행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광주는 “국내 첫 흑자대회를 치르겠다”며 신축 경기장을 줄이고 대부분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가 하면 인근 전남과 전북의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시설 70곳 중 4곳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존 시설을 개·보수한다. 이 중 전남에는 21곳, 전북에는 4곳 등 타지역 시설도 25곳이나 된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충주와 송도, 강화도 등 곳곳에 경기장을 분산배치하는 바람에 선수들이 수송 수단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경기나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선수촌으로 돌아갈 버스 등을 놓쳐 도로변을 배회하는 등 후진국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전 세계의 망신을 산 것이다. 이는 전남과 전북으로 분산된 광주 U대회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또 신축이 아닌 기존 노후화한 시설물을 개·보수하다 보니 자칫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요즘 광주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폭우 등이 대회기간 쏟아져 경기시설에서 빗물이라도 샌다면 광주라는 도시의 명성에도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자원봉사자 태부족에 교육 미흡=최소 3만명이 필요하다는 자원봉사자도 걱정이다. 이미 인천에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거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이 벌인 난맥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U대회 조직위는 현재까지 지원한 자원봉사자 5만7000여명 중 3만3000명은 직무교육을, 2000여명은 심화교육을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된 자원봉사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이는 총 5단계로 나뉜 U대회의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일단 자원봉사자로 참여자 12만명을 대상으로 1단계 기본교육, 2단계 직무교육(주요 임무와 위기관리 대응능력, 국제매너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과하면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6만명을 다시 선발해 3단계 심화교육을 한다. 4단계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현장실습 교육으로, 현장 투입 인력의 120%인 3만6000명을 선발해 선수학습을 한다. 마지막 5단계는 내년 4월까지 최종 3만명을 선발해 실제와 같은 실습을 하게 된다.

하지만, 3단계 심화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는 목표치인 6만명의 3.3%에 불과한 2000명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봉사자 확보와 교육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인천의 혼란이 광주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6일 오후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맨 왼쪽)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 교육감 내년 누리과정·돌봄교실 예산편성 보이콧 예고

전국 교육감들이 3조1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업을 떠맡았다간 교육청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어 보이콧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등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공동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시키면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예산을 1조4500억원 삭감한 정부에 대해 성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3조1000억원 규모의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등의 예산 전액 확보 방안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을 돌보는 데 사용되는 예산으로 교육청이 이를 편성하지 않으면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등에 대한 현재의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 결과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을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상생협력 첫 성과

중기청 ‘중견기업 육성 사업’ 공동 선정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6기 들어 ‘상생협력’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한 프리 월드 클래스(Pre-World Class) 시범사업이 선정됐다.

프리 월드 클래스 시범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역 기반 중간기업군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전문 중견기업(World Class)’ 후보군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상 기업은 매출액 400억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기업 중 최근 5년 매출액 증가율이 8%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이 2%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당초 공모사업을 독자적으로 신청하고 사업 확보를 위해 서로 경쟁했으나, 시·도가 상생 발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공동 참여 방향으로 전환해 공동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이번 주 누리집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중순까지 희망기업 신청을 받아 사업 계획 평가 및 현장 방문 실사를 거쳐 10월 말 지원 대상 기업 5개씩을 확정하고 기업당 국비·도비 1억원을 지원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내용은 대상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성장 전략 수립과 중장기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지원, 기업 수요에 따른 수출제품 인증, 기업 상장, 지식재산 활용, 경영·세무 등 맞춤형 자문 등이다.

이순만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프리 월드 클래스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역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 간 기업 육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벤치마킹토록 하는 등 양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